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9, No. 1, pp. 143-153, 2008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邑治施設 利用
- 交龜, 巡歷 및 行禮를 中心으로 -

여상진[1*]

The *Chungcheong-Gamsa*'s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in 18th Century
- Focused on *Kyogwi*, *Sulryeok* and Ritual Ceremony -

Sang-Jin Yeo[1*]

요 약 최근 구도심내 廳舍의 이전과 함께 도심 내 邑治施設의 발굴 및 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보전 또는 활용 가능한 읍치를 사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읍치시설의 복원 혹은 재정비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그의 활용문제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觀察使와 관련된 각종 儀禮나 행사의 재현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증하는 요구에 비하여 관련 자료의 발굴과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18세기 忠淸道를 대상으로 忠淸監司가 작성한 사료인 日記 (「忠淸監營日記」, 「湖西監營日記」, 「錦營日記」)를 분석하여 監司의 到任과 交龜, 監營處에서의 執務 및 行禮와 관련된 監營施設의 실재적 이용 상황은 물론 監司의 巡歷과 관련지어 巡歷 行路와 巡歷時 道內 각 邑治에서 실재 행해진 行禮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각 도별로 확대되면 각 도 관찰사와 연관된 읍치시설 활용 및 행례의 각 도별 공통점과 특수한 점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각 읍치시설의 활용과 각종 행례 재현에 실증적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has there been a great increase of the interests in the excav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and their restoration. There also arise discussions on whether the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appoint old governing institutions as the historical spots. In the course of the excavation and restoration of old governing institutions, their practical use becomes a matter of concern. So the reproduction of the past ritual ceremonies and events in the governing institutions attracts considerable attention. But the discovery and the analysis of historical materials are very insufficient to meet the recent increase of such demand.
In that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eremony of *Kwanchalsa*'s(觀察使; a provincial governor) arrival at one's post and the use of governing institutions for it and to examine the *Kwanchalsa*'s route of *sulryeok*(巡歷) and the ritual ceremonies held in the cities he visited. The *Chungcheong-Gamsa*(忠淸監司; the governor of *Chungcheong-Do*) in the 18th century is the subject of this analysis and three local officials' diaries - *Chungcheong Gamyeong Ilgi* (「忠淸監營日記」), *Hoseo Gamyeong Ilgi* (「湖西監營日記」), *Geumyeong Ilgi* (「錦營日記」) - are closely investigated for that purpose.

Key words : 觀察使, 忠淸監司, 監營, 邑治施設, 交龜, 巡歷, 行禮, 監營日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朝鮮時代의 邑治는 주로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므로 官衙와 客舍 등 邑治施設은 읍치의 중앙을 점하던 주요 시설이었다. 地方自治制度 시행 이후 과거 읍치의 중심 시설인 監營, 官衙 등 도심 내 읍치시설의 발굴 및 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보전 또는 활용 가능한 읍치를 사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대두되고 있다.[26]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地自體의 廳舍가 현대적 시설로 신축하게 되면서 과거 읍치시설이 자리하였던 구도심으로부터 移轉하게

이 논문은 2006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1]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신저자 : 여상진(sjyeo@sunmoon.ac.kr)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24, p.7], 이를 계기로 침체되어가는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까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간된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에서 '전라북도청사의 이전에 따라 복원의 필요성과 함께 침체되어가는 기존 도심의 활성화와의 연계 필요성이 동시에 부각'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그 일례라 할 수 있다.[17]

이러한 배경 하에 복원 및 그 활용 논의가 가장 활발한 대표적 읍치 시설로 과거 각 道의 觀察使가 집무하던 監營을 들 수 있다. 군청사가 있던 원주의 江原監營은 2005년 1차 복원을 마치고 2차 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북도청이 있던 전주의 全羅監營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복원 논의가 활발하다.[1)]

그림 1. 조선시대 監營 사례
左 : 2005년 1차 복원된 강원감영 전경 (출처:[13])
右 : 공원으로 이용되는 경상감영 (출처:[14])

이러한 監營施設의 복원 혹은 재정비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그의 활용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觀察使와 관련된 각종 儀禮나 행사의 재현이 주목되고 있다. 감영시설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것으로 觀察使의 交龜 行禮, 到任 및 巡歷 行次, 望闕禮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지역 축제 등에 경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2)]

그림 2. 觀察使 관련 行禮의 재현
左 : 全羅監司 行次 (출처:전북일보 2007.11.12)
右 : 慶尙監司 交龜式 (출처:매일신문 2006.9.29)

그런데 증가되는 監營施設의 복원 혹은 재정비 논의와 그 활용요구에 비하여 실제 각 도별로 이루어진 觀察使의 執務와 관련된 구체적인 감영시설 이용 내용이나 觀察使의 巡歷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留營 행정 체제로 인해 監營施設이 미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전기의 사료인 미암 유희춘의 「眉巖日記草」가 여전히 주요한 전거로 이용되고 있는 한편, 최근에 이르러서야 조선후기의 사료인 18세기 경상감사 조재호의 「嶺營日記」[3)]가 발굴되어 이와 비교 분석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들 한정된 사료만으로는 각 도별로 행해진 觀察使의 집무와 그에 따른 도내 읍치시설 이용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각종 지역 축제에서 빈번하게 재현되는 監司 巡歷 行次의 경우 대체로 「眉巖日記草」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료이지만 日記 중 別紙에 따로 기록된 내용으로 실제 언제 어디에서 행해진 巡歷인지 알 수 없는 한계는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 道 觀察使의 집무와 이를 기반으로 한 행례 재현 및 읍치 시설 활용 문제는 각 도별 그리고 시설별로 행해진 특수한 성격까지를 포함하여야 보다 확고한 지역축제의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무엇보다도 각 도별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자료의 축척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할 때 각 道 邑治施設 사용의 공통점과 일부 道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점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각종 행사의 재현을 통한 활용과도 직결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忠淸道[4)]를 대상으로 忠淸監司가 작성한 실질적 사료인 日記를 발굴하여 觀察使의 到任과 交龜, 監營處에서의 執務 및 行禮와 관련된 監營施設의 실재 이용 상황은 물론 觀察使의 巡歷과 관련지어 巡歷行路와 巡歷時 道內 각 邑治에서 실재 행해진 行禮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2 연구의 대상과 범위

觀察使가 監營은 물론 道內 각 邑治에서 실재 행한 집무와 관련된 자료로는 앞서 언급한 「嶺營日記」와 같이 관찰사가 직접 작성한 日記가 가장 중요한 일차 사료이

1) 「전북일보」 2005년 10월 27일자 "전라감영 복원", 2006년 7월 16일자 "전라감영 발굴사업", 2007년 7월 26일자 "전라감영 복원 공간 범위 확대" 등 참조.

2) 강원감영제의 江原監司 到任儀式 및 到任行次의 재현, 문경문화제의 문경새재 交龜亭에서 행해지는 交龜 儀禮의 재현,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의 慶尙監司 도임 순력 행차 재현, 全羅監營에서 행해지는 望闕禮와 全羅監司 行次 재현 등을 들 수 있다.

3) 일본 京都大學 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으로 『譯註 嶺營日記·嶺營狀啓謄錄』(2004.5)으로 발간되었다. 경상감사에 제수받은 1751년(영조27) 5월10일부터 감사의 소임이 끝난 뒤 문경현에 이른 1752년(영조28) 8월1일까지의 일기이다.

4) 忠淸道는 명칭 변경이 가장 극심한 道이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18C만 하더라도 공홍도(1680,숙종6), 공청도(1729,영조5), 충청도(1731,영조7), 홍충도(1777,정조1)의 명칭 변화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모두 忠淸道로 통칭한다.

다. 본 연구의 대상인 충청도의 경우 18세기에 작성된 3종의 日記가 전하는데, 이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으며 이들 3종의 日記를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유관 내용이 있는 경우 경상감사 조재호의 『嶺營日記』를 비롯한 기타 일기도 비교 참조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일기

日記名	著 者 (생몰년)	日記 收錄 其間*	소장처
忠淸監營日記	李 濟 (1654-1714)	1704년(숙종30) 5월 ~ 1705년(숙종31) 3월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1-나13)
湖西監營日記	尹陽來 (1673-1751)	1721년(경종1) 4월 ~ 7월	규장각 (一養 古 816.53-H792h)
錦營日記	沈頤之 (1735-1796)	1780년(정조4) 3월 ~ 10월	장서각 (K2-3610)

* 到界~遞任까지는 실재 일기 수록 기간과 차이가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忠淸監營日記』는 표지 서명이 『湖西監營日記』로 되어있다.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본문에 靑陽縣監 尹夏敎가 등장하며 이를 『靑陽邑誌』(一養 古 915.132-C422)의 官蹟條 기사와 비교하면 일기의 甲申年이 1704년(숙종30)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公山誌』(經古 915.132 Iml g)의 '營門先生案'을 통해 살피면 당시의 忠淸監司는 李濟임을 알 수 있다. 『湖西監營日記』의 저자인 尹陽來는 忠淸監司 재직 중에 왕명을 어겨 효수형을 받게 된 朴世明을 두둔하였다는 죄로 파직을 당한다. 따라서 『湖西監營日記』에 수록된 기간도 1721년(경종1) 4월~7월까지로 짧은 편이지만 실재 충청도에 到界한 뒤의 재임 기간은 한 달여뿐이다. 따라서 다른 두 종의 일기에 비해 巡歷 내용을 살필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沈頤之의 『錦營日記』는 '國史編纂委員會, 『各司謄錄』 48권 충청도보유편'에 실려 있어 다른 두 종의 일기에 비하여 알려진 편에 속한다.

이들 일기는 당해 地方官이 작성한 仕宦日記로 일종의 공식적 '행정 업무일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과 내용을 배제하고 그날 관청에 있던 일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일기를 통해 觀察使가 행한 집무와 방문한 守令 및 기타 官員, 巡歷과 巡歷時 집무 장소 및 宿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한편 이들 일기는 개인이 작성한 生活日記에 비하여 일별로 기록된 내용이 대부분 매우 소략한 점이 분석에 한계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18세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분석 대상 사료가 모두 18세기란 점에 일차적으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술한 경상감사 조재호의 『嶺營日記』 역시 18세기의 사료로 향후 타지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동일성을 지닌다는 점과 조선시대에 있어 18세기는 이른바 16~17세기의 사족지배체제에서 수령권을 통한 官主導의 지배방식이 심층화한 시기로 평가[21, pp.183~279]받고 있어 觀察使의 집무와 관련된 시설이용 분석에 적합하다는 점도 관련되었음을 밝힌다.[5]

2. 朝鮮後期 監司의 執務形態와 交龜, 巡歷 및 行禮

觀察使 혹은 監司는 道伯, 道臣이라고도 불리던 一道의 통치행정 책임자이다. 관찰사의 업무는 權風察俗, 守令黜陟, 穀倉의 감찰, 백성의 安集, 조세의 轉運, 勸農, 교육, 刑獄, 兵馬 등 도내 일체의 행정·사법·군사업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관찰사는 直啓權을 가지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국왕은 관찰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행정체계였다. 관찰사의 통치행정적 기능은 크게 外憲 기능과 方伯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외헌 기능이란 관찰사가 外官 즉 수령에 대해 규찰 탄핵하는 기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찰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도내 수령의 褒貶을 등제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방백 기능이란 한 도의 행정장관으로서의 통치행정기능을 의미하는데, 그 행정적 기능으로 勸農, 救恤, 試取, 收稅, 국왕의 敎文 반포, 각종 진상물의 看品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사유재산권의 인증, 죄인의 수금과 치죄, 소송의 판결 등 사법적 기능과 유사시 군 지휘권을 비롯하여 兵使와 水使를 겸하는 군사적 기능까지도 포괄한다.[18]

관찰사의 외헌기능은 수령들의 비위와 불법을 규찰하여 국왕에게 직계하고 수령들의 근무실적을 염찰하여 포폄등제를 정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는데, 이를 위해 관찰사는 도내 각 邑을 부지런히 巡歷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조선전기 이래 관찰사의 집무형태는 巡歷行政體制를 띠게 되었다. 관찰사의 순력은 상당수의 수행원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문종대 관찰사 순력 행차의 인원은 首領官·差使員·敎諭·檢律·察訪·驛丞과 따르는 伴從 등 50~100여명에 이르렀으며[16, p.70] 그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기도 하였다.[12]

17세기 후엽에 이르면 觀察使의 집무형태가 留營行政體制로 바뀌게 된다. 이는 외헌 기능보다 방백 기능이 중시되는 근대적 관료제로의 이행을 의미하는데, 관찰사는 監營에 留營하며 집무를 수행하였고, 봄과 가을에 걸쳐 1

5) 시기적인 차이점 역시 향후 분석 과제이다.

년에 단 2회의 순력 즉, '春秋巡歷'만 하였으며 그 기간도 대폭 줄었다. 또한, 순력의 목적도 외관규찰이나 행정수행이 아니고 陵園(寢) 혹은 農形을 살피고 饑民 구제, 勸農, 求瘼 등의 일을 감독 권면하기 위해서였다.[18, pp.45-46]

이는 조선 전후기의 순력 사례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다. 조선전기(16C末)의 전라도 관찰사 柳希春은 203일 동안 監營處인 全州에 머문 23日을 제외한 전 기간 동안 교통이 불편한 오지의 邑 10개를 제외한 49개 邑을 순력하였고, 이중 2회 이상 순력한 읍이 25개, 4회까지 순력한 읍도 있었음에 비하여, 조선후기(18C中) 경상도 관찰사 趙載浩는 재임기간 397일 동안 순력한 기간이 1차 20日에 22개 邑, 2차 23日에 22개 邑 즉, 총 43日에 불과한 기간에 44개 邑만을 순력하였다.[24, pp.169-178] 순력하지 않은 읍도 42개에 달하였다.

유영행정체제로의 전환은 각 도 감영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23] 또한 유영행정체제 하의 관찰사 집무와 읍치시설의 이용 문제는 감영처에서의 집무와 일반 읍치 순력시의 집무로 구분되어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위 사례에서 보듯 유영행정체제 下에서의 순력은 모든 읍치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므로 사료만 가능하다면 一道 순력의 經路 역시 비교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관찰사에 擇差되어 부임하는 일은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관찰사직에 제수되는 것이고, 둘째 謝恩 및 辭朝하는 것이며, 셋째는 부임하는 것이다. 사은이란 임관, 승진, 전보된 자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闕內에 들어가 大殿, 大妃殿, 中宮殿, 世子宮 등에 謝恩肅拜를 드리는 것이며, 사조란 사은숙배를 드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부임준비를 끝내고 다시 입궐하여 왕에게 하직의 숙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15, pp.31-34] 수령이 임지에 도착하는 것은 到任이라 한데 비하여, 觀察使가 부임하는 것을 到界라 하였다. 道界에 들어서면 바로 觀察使로서의 직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19, p.48] 到界 후에 구임 관찰사와 신임 관찰사는 임무를 교대하게 되는 데 이를 交龜라 한다. 교귀시에는 官印과 兵符를 절차에 따라 전하고 받게 된다.[6] 到界, 交龜 및 신임 觀察使가 감영처에 도임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나와 격식에 맞춘 행례와 의식이 행해졌다. 현존하거나 복원된 지방 읍치시설의 활용에서 과거 행례 재현 측면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따라서 이때 이용된 읍치시설의 종류와 실제 행해진 행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6) 『經國大典』에 관찰사는 印信을 境界上에서 신구임자가 직접 면대하여 引繼引受한다 하였다. 『經國大典』, 禮典, 用印.

3. 18世紀 忠淸監司의 交龜와 執務時 監營施設 利用

3.1 到界 및 交龜와 行禮

1) 到界 및 交龜處

李濟는 1704년(숙종30) 5월11일 병조참지에서 충청감사로 임명을 받고 6월11일 下直肅拜하고 한양을 출발하여 陽城을 거쳐 6월15일 稷山에 到界한다. 稷山의 五里程 依幕에 이르자 都事, 천안군수, 성환찰방, 직산현감, 진천현감, 평택현감 등이 마중을 나왔고 前導하여 稷山 客舍에 이르러 敎諭書에 肅拜한 후 公私禮를 끝내고 東軒으로 돌아와 坐起하여 行公한 뒤 숙소로 삼았다.[7] 이후 德坪, 廣程을 거쳐 6월18일 監營處 公州에 도착하였는데 右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公州牧使와 利仁찰방이 五里程에서 맞아 客舍에 도착하여 敎諭書에 肅拜 후 公私禮를 행하였으며 將官 이하 모두는 軍禮를 행하였고 東軒으로 옮겨 우영장, 공주목사, 이인찰방, 성환찰방이 坐起禮를 행하였다. 李濟는 舊 監司와 별도의 交龜없이 到界와 함께 觀察使의 직무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尹陽來는 1721년(경종1) 4월29일 형조참의에서 충청감사로 제수된 뒤 6월19일 새벽에 闕에 들어 辭朝하고 敎諭書를 받들어 한양을 출발하였다. 尹陽來 역시 陽城을 거쳐 6월24일 稷山에 到界하는데, 交龜所에 가서 舊 監司와 交龜하였다. 都事, 천안군수, 평택현감, 연기현감, 전의현감이 五里程에서 맞아 先導하여 (稷山)客舍에 이르러 敎諭書에 肅拜하고 公私禮를 행하고 入謁하였다. 교귀 후 천안, 廣程을 거쳐 6월26일 공주에 도착하였다. 공주 五里程에 이르니 右營將과 審藥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나왔으며, 공주목사, 이인찰방이 揖하고 前導하여 공주 客舍에 이르러 영장, 목사, 찰방이 敎諭書에 肅拜하고 公私禮를 행한 뒤 감영의 宣化堂에 돌아와 영장, 목사, 찰방이 坐起禮를 행하였다.

沈頤之는 1780년(정조4) 3월27일 慶尙監司 제수 당시 慶州府尹으로 재임 중이었다.[8] 4월7일 그는 慶尙監司에 임명하는 敎諭書를 慶州 五里程에서 맞이하여 慶州 客舍에서 행례한 뒤 관아로 돌아왔다. 이후 4월10일 경주를 출발하여 4월11일 대구의 慶尙監營에 들렀다가 4월13일 충청도 黃澗으로 到界하였다. 황간현 兼任 청산현감, 율

7) 『忠淸監營日記』 甲申(1704년) 6월15일자 기사. 이하 일자가 명기된 경우 각주를 생략한다.

8) 慶州先生案인 『東都歷世諸子記』에 의하면 沈頤之는 己亥(1779년) 9월 軍衙에서 慶州府尹으로 임명되어 10월23일에 도임하고 庚子(1780년) 3월27일에 洪忠道 觀察使에 임명되어 떠났다고 하였다. 『錦營日記』에 의하면 1780년(정조4) 3월27일 下批하다는 기록 후 4월6일부터 일기가 시작한다.

봉찰방이 五里程에 나와 기다려 敎諭書에 望揖하고 先導하여 황간 客舍에 이르러 迎命하였다. 沈頤之는 永同, 利源, 懷德을 거쳐 4월15일 監營處 공주에 이르렀다. 공주 五里程에 도착하니 中軍 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공주 判官, 목천현감이 나와 敎諭書를 기다려 望揖하고 先導하여 拱北樓에 도착하여 交龜한 뒤 監營에 坐起하니 中軍 이하가 迎命한 후 公私禮를 행하고 入謁하였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交龜處는 각 일기의 말미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李濟는 新監司와 공주 내 금강 상류에서 교귀 하였으며, 沈頤之는 稷山 客舍에서 교귀 하였다.[9]

이상 세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성종 및 연산군대의 내용이 담긴 『東國輿地勝覽』 권16 충청도 진천군 역원조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접어드는 鎭川縣의 廣惠院 곁에 亭子가 있어 新舊 관찰사가 印을 교대하던 교귀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영조~철종년간 간행으로 추정되는 『忠淸道邑誌』 [10]의 鎭川縣 조에서는 이 정자가 이미 廢하였다고 되어있고[10], 분석된 일기에 공통적으로 稷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한양에서 辭朝한 뒤 到界할 경우 충청도 稷山이 주로 到界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직산은 한양에서 제주까지 통하는 소위 삼남대로 중 경기도 陽城에서 충청도 天安으로 향하는 충청도 길목의 읍치이다. 한편, 沈頤之의 사례에서 보듯 모두 한양에서 사조 후 도계하는 것은 아니며 觀察使 제수 당시 下三道의 지방관으로 근무 중이었을 경우 사조를 생략하고 到界하게 되므로 이때 도계하는 읍치는 달라질 수 있다. 『錦營日記』의 沈頤之는 경상도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경상도와 인접한 충청도 黃澗으로 到界 하였다.

둘째, 交龜處는 대체로 尹陽來의 경우와 같이 한양에서 충청도로 통하는 稷山 交龜所에서 交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李濟 도임의 경우와 같이 交龜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사조를 생략하고 경상도에서 到界한 沈頤之의 경우에는 監營處 공주에서 交龜하였으므로 공주에서 교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監營處 공주의 교귀 장소는 일정치 않은데 李濟는 解由 시 공주 내 금강 상류, 沈頤之의 경우에는 공주의 拱北樓가 교귀소로 이용되었다.

9) 『忠淸監營日記』 1705. 2.16., 『錦營日記』 1780. 10.9.

10)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경상도에서는 조령을 넘어 到界하면 문경 서쪽으로 27리에 交龜亭이 있어 新舊 監司가 印을 교환하였으며(권29 경상도 聞慶縣 樓亭條), 전라도에 드는 길목에 위치한 礪山郡에도 군 북쪽 11리에 望華亭이 있어 新舊 관찰사들이 교대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한다.(권34 전라도 礪山郡 樓亭條)

2) 監營處의 行禮

앞서 분석대상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觀察使가 到界할 때 도계지의 守令은 물론 인접 지역의 守令과 察訪이 관속을 이끌고 도계지의 五里程에 나와 觀察使를 맞이한다. 觀察使가 도착하면 당해 읍치의 守令이 前導하여 읍치 내 客舍에 이르러 觀察使가 가져온 敎諭書에 肅拜하는 儀式을 행한 뒤 觀察使와 守令들은 公禮와 私禮를 행하게 된다. 行公할 경우 읍치의 치소(東軒)로 자리를 옮겨 坐起禮를 행한 뒤 行公하게 된다.[11]

監營處인 公州에서도 도계지와 行禮의 내용은 같으나 공주목사, 인접 수령 및 찰방 이외에 右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는 공주에 右鎭營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주에서는 도계지보다 그 행례가 더욱 화려하고 장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客舍에서 敎諭書 肅拜와 公私禮를 행한 뒤에는 將官 이하의 軍禮가 행해지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12]

沈頤之는 감영처 공주에서 交龜까지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行禮의 순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의 『錦營日記』에는 敎諭書에 望揖하고 先導하여 拱北樓에서 交龜한 뒤 監營에서 坐起한 것으로 간략히 언급되어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충청감사 沈頤之를 공주에서 맞이할 때 있었던 목천현감은 바로 黃胤錫으로 10세 때부터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거의 평생에 걸친 54년간의 일기 『頤齋亂藁』를 남긴 인물이다. 황윤석의 일기를 통하여 이날 행례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朝飯 후 아직 어두울 때 의관을 갖추고 將臺 坪江 위의 依幕으로 나아갔다. 營將, 中軍, 判官이 차례로 와서 모였고 巳時에 新監司(심이지)가 도착하였다. 三官과 함께 동시에 望揖하고 先導하여 熊州館(客舍)에서 延命을 하였다. 午後에 新監司와 舊監司가 山城(拱北樓)에서 交龜를 한 뒤 監營에 이르렀다. 이에 裨將으로 대신하여 敎諭書를 보내니 나(황윤석)와 三官은 또 동시에 殿牌에 四拜하고 上香하고 또 四拜하였다. 延命을 끝내고 監營으로 가서 公禮와 私禮로 아뢰었다.'[13]

즉, 觀察使 도착 후 客舍로 가서 敎諭書에 肅拜하는 行

11) 柳希春이 礪山으로 到界하는 때에 보다 자세하다. 『眉巖日記草』 1571.3.21., [7], p.98

12) 『忠淸監營日記』 1704. 6.18.

13) [4] 1780.4.15., p.240, 朝飯後 稍晩帽帶 赴將臺坪江上依幕 則營將李運祥 中軍李晟 判官李德鉉 次第來會 巳時 新使至余與三官 同時望揖 先導至熊州館待延命 午後 新使與舊使 交龜于山城 乃行上營訖 乃代裨將陪諭敎二書出來 余與三官 又同時四拜于殿牌 上香又四拜 旣延命 又赴營 以公禮謁 又以私禮謁

禮를 먼저 하였고, 交龜는 그 후에 拱北樓에서 행하였다. 교귀 후 觀察使는 監營으로 가서 坐起하였고 迎命禮는 客舍로 裨將을 대신 보내어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충청감사의 交龜 및 到界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읍치 시설의 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충청감사의 到界는 주로 稷山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도내 他邑에 비하여 稷山의 五里程과 客舍가 行禮時 이용되는 주요한 시설이었다. 둘째, 「忠淸監營日記」의 稷山, 「頤齋亂藁」의 公州 기사에서 알 수 있듯 五里程은 亭子가 아닌 임시로 가설된 依幕이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交龜處로는 도계지인 稷山 또는 감영처인 公州가 중요시 되었다. 네째, 감영처 공주는 右鎭營이 설치되어 觀察使 도임시 右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가므로 他邑治에 비하여 그 行禮 규모가 더욱 컸다고 판단된다.

3.2 監營處의 執務와 施設 利用

유영행정체제 하에서 감영처 공주에는 대단히 많은 수령이 방문하게 된다. 분석 일기 모두에서 거의 하루에 한 명이상의 수령이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령이 감영처에 방문하는 경우 迎命禮를 행한 뒤 觀察使를 뵙는 경우와 영명례를 행하지 않고 바로 觀察使를 뵙는 두 가지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세밀히 비교하면 新監司가 부임 후 감영처에 처음 방문한 수령 혹은 새로 부임한 수령은 모두 영명례를 행하게 되며, 이후 재차 감영처에 방문하는 경우는 영명례 없이 觀察使를 바로 뵙게 된다.

수령의 영명례는 客舍에서 행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頤齋亂藁」의 목천현감 黃胤錫이 영명례를 행할 때 觀察使 沈頤之가 客舍 熊州舘으로 裨將을 대신 보내어 행례하게 하였음을 살펴본 바 있다. 「頤齋亂藁」에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한다. 한해 전인 1779년 10월 15일 목천현감 황윤석은 감영처인 공주에 觀察使를 뵈러 들렀다. 이때에도 迎命禮를 행한 후 觀察使 李秉鼎을 뵈었는데, 이때 황윤석은 熊州館에 이르러 延命하였고, 觀察使는 裨將으로 諭敎書를 대신 보내어 行禮하게 하였다. 그 뒤 황윤석은 觀察使의 집무처인 宣化堂으로 가서 觀察使를 뵈었다.[14]

丁若鏞은 「牧民心書」(1818)에서 '迎命'이란 본래 '延命'으로 觀察使가 客舍의 殿牌 앞뜰에서 직접 임금의 명령을 대신해서 펴고 고을의 수령은 임금의 명령을 맞이하는[延命] 것인데[15], 이것이 지방 수령이 관찰사를 參謁하는 것으로 오해된 세태를 지적하였다. 즉, 君命을 존경하는 뜻으로 觀察使가 직접 詔諭를 펴야 하고 수령은 觀察使가 순행하여 본읍에 도착하지 않으면 끝내 延命하지 않는 것이 도리였는데, 당시의 수령은 상관을 아첨으로 섬기어 觀察使가 到任하면 열흘이 못되어 監營으로 달려가 延命의 禮를 행하고 당시의 觀察使 역시 스스로 존대해져 망령되이 裨將을 시켜 대신 받게까지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兵馬使와 水軍使는 觀察使와 같은 使臣임에도 불구하고 裨將을 시켜 대신 받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12, 24, pp.188-190] 정약용의 지적은 19세기 초의 상황이고 같은 글 그의 언급에 의하면 英祖 초년까지도 아직 옛 법이 통용되었다 한다. 그러나 정약용이 태어나기 전인 영조27년(1751)에 작성된 경상감사 조재호의 「嶺營日記」에서 보듯 裨將으로 하여금 迎命禮를 대신 행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觀察使가 객사에서 수령의 영명을 직접 받는 것은 정약용이 지적한 영조대보다 더욱 이전의 상황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분석대상 일기에서는 이 부분이 모두 상투적 문구로 반복 표현되어 영명례를 觀察使가 직접 행한 것인지 비장으로 대신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16] 다만, 18세기 후반의 「錦營日記」에 兵使의 迎命[17]과 水使의 迎命[18]을 직접 받았다고 따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 이외 빈번한 수령 방문의 경우는 정약용의 지적과 같이 裨將으로 하여금 迎命禮를 대신 행하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감영처의 객사 이용에 있어 중요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즉, 觀察使의 유영체제 확립으로 지방수령의 감영처 방문이 매우 빈번하게 되었고, 이는 감영처 객사에서 매일 두세 차례 이상의 영명례가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의 영명례는 裨將이 대신 하는 형식적인 행례로 진행되었으므로 빈번한 수령의 방문과 영명례가 감영처 객사의 행례 장소적 중요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19]

14) [4] 1779.10.15., p.123, '朝後 請熊州舘延命 則送裨以方伯諭敎書代至 余先四拜上香 又四拜畢 乃詣宣化堂 入見方伯(李秉鼎) 則方伯言…'. 괄호 필자.

15) 迎命禮 또는 延命禮란 순력체제 하에서 觀察使가 지방 각 읍치의 객사에서 하던 행례, 즉 『國朝五禮儀』의 「外官迎觀察使儀」를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16) 18세기 초반의 「忠淸監營日記」와 「湖西監營日記」에서는 '敎諭書 肅拜'로, 18세기 후반의 「錦營日記」에서는 '迎命'으로 그 표현에 차이가 있다. 다만 '敎諭書 肅拜'로 표현된 경우라도 觀察使가 직접 영명례를 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향후 다른 사료와 비교를 요한다.

17) 「錦營日記」 1780. 4.28.

18) 「錦營日記」 1780. 6.5.

19) 客舍에서는 望闕禮 및 望哭禮(「錦營日記」 1780. 윤6.1.)가 행해졌으며, 試射가 치뤄지기도 하고(「忠淸監營日記」 1704. 8.1.) 간혹

표 2. 18世紀 忠淸監司의 巡歷 비교

	『忠淸監營日記』 (李濟)		『錦營日記』 (沈頤之)	
巡歷 其間	1704년(숙종30) 8월28일-9월25일/10월4일-10월24일		1780년(정조4) 8월16일-8월27일/9월13일-10월1일	
巡歷한 邑	1차 左巡 (28일간)	尼山, 恩津, 連山, 鎭岑, 懷德, 文義, 沃川, 永同, 黃澗, 靑山, 槐山, 延豊, 忠州, 堤川, 永春, 丹陽, 淸風, 陰城, 淸安, 淸州, 燕岐	1차 右巡 (12일간)	石城, 恩津, 林川, 韓山, 舒川, 庇仁, 藍浦, 保寧, 結城, 洪州, 泰安, 瑞山, 沔川, 德山, 禮山
	2차 右巡 (21일간)	定山, 靑陽, 鴻山, 石城, 林川, 韓山, 庇仁, 藍浦, 結城, 海美, 泰安, 瑞山, 沔川, 德山, 洪州, 大興, 禮山, 新昌, 溫陽, 稷山, 天安, 木川	2차 左巡 (19일간)	溫陽, 木川, 西原(淸州), 淸安, 陰城, 忠州, 堤川, 永春, 丹陽, 淸風, 報恩, 文義
治所에 들르지 않고 경유한 邑	報恩, 保寧(水營에만 순력함)		延豊, 沃川	
巡歷하지 않은 邑	懷仁, 鎭川, 舒川, 唐津, 牙山, 平澤, 全義		尼山, 連山, 鎭岑, 懷德, 沃川, 永同, 黃澗, 靑山, 槐山, 延豊, 燕岐, 定山, 靑陽, 鴻山, 海美, 大興, 新昌, 稷山, 天安, 懷仁, 鎭川, 唐津, 牙山, 平澤, 全義	

감영처 공주에는 御使등 使臣이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拱北樓, 挹河樓와 將臺, 雙樹亭 등이 周覽處로 이용되었다.[20] 숙소로는 客舍 이외에 산성의 後樂亭이 이용되기도 하였다.[21]

한편, 감영시설의 이용 중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觀察使의 政廳인 宣化堂에서 坐起하였다고 언급되는 기록이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宣化堂에서의 坐起는 죄인을 親問하는 등 특별한 경우로 보이고[22] 일상적인 집무는 오히려 披香堂이나 拱北樓가 활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3] 그렇다면 산성의 拱北樓는 교귀의 장소이며 주람의 장소이자 일상적 집무의 장소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湖西監營日記』와 『忠淸監營日記』에 등장하는 觀察使가 鄕廳으로 移駐하였다는 기록[24]도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파직을 당한 상태이므로 집무처를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4. 18世紀 忠淸監司의 巡歷과 道內 邑治施設 利用[25]

4.1 忠淸監司의 巡歷 行路

연구대상 일기 중 『湖西監營日記』에는 재임기간이 짧아 순력 관련 기사가 없으나 『忠淸監營日記』와 『錦營日記』에는 순력의 행로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충청도 관찰사의 巡歷 經路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2]이며, 이를 조선시대 행정지도 위에 표시해본 것이 [그림 3, 4]이다.[26]

巡歷은 대체로 左道와 右道를 나누어 1,2차로 순력하였는데, 左右道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순력 노정을 잡은 것은 아니다. 먼저 양 관찰사의 巡歷 其間과 邑의 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즉, 18세기 후반의 『錦營日記』에서는 순력 기간이 짧고 순력하지 않은 읍도 상당수에 달해 동시기 경상감사 조재호의 『嶺營日記』 순력 내용과 비슷하여 통상적인 경우로 추정되지만, 『忠淸監營日記』에서는 觀察使 李濟가 순력한 邑의 수가 留營體制인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많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18세기 초반까지도 도내 全邑을 순력하던 行營體制의 관습이 남아있는 것인지 혹은 觀察使가 특별한 임무[27]를 위해 보다 많은 읍을 순력한 것인지 향후 他道 監司의 사례와 비교를 통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行路 역시 양자가 상당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李濟는 아래로 尼山과 恩津을 거쳐 충청좌도를 향하여 순력

坐起處로 이용(『忠淸監營日記』 1704. 8.5.)되기도 하였으므로 객사의 행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고찰을 요한다.

20) 『錦營日記』 1780. 5.9., 6.10., 6.21., 7.15.

21) 『湖西監營日記』 1721. 6.29., 윤6.27., 『錦營日記』 1780. 7.9.

22) 『忠淸監營日記』 1704. 7.3., 8.17.

23) 『忠淸監營日記』 1704. 6.20., 7.4., 8.6., 8.15.

24) 『忠淸監營日記』 1704. 12.10., 『湖西監營日記』 1721. 윤6.22. 李濟의 파직 관련 기사는 『숙종실록』 30(1704)/10/20(정해), 30/11/20(병진), 30/12/21(정해), 31(1705)/01/09(갑진), 31/02/10(갑술) 기사 참조. 尹陽來의 파직 관련 기사는 『경종실록』 1(1721)/윤06/20(기묘) 참조.

25) 이하 4장의 내용은 [25] "18世紀 忠淸道 觀察使의 巡歷",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7.12)의 발표 내용이 보완된 것임.

26) 『錦營日記』의 巡歷 行路는 [22, p.59]에도 제시된 바 있다.

27) 『忠淸監營日記』 1704. 8.28. 기사에 灾宋 順審使로 營을 떠난다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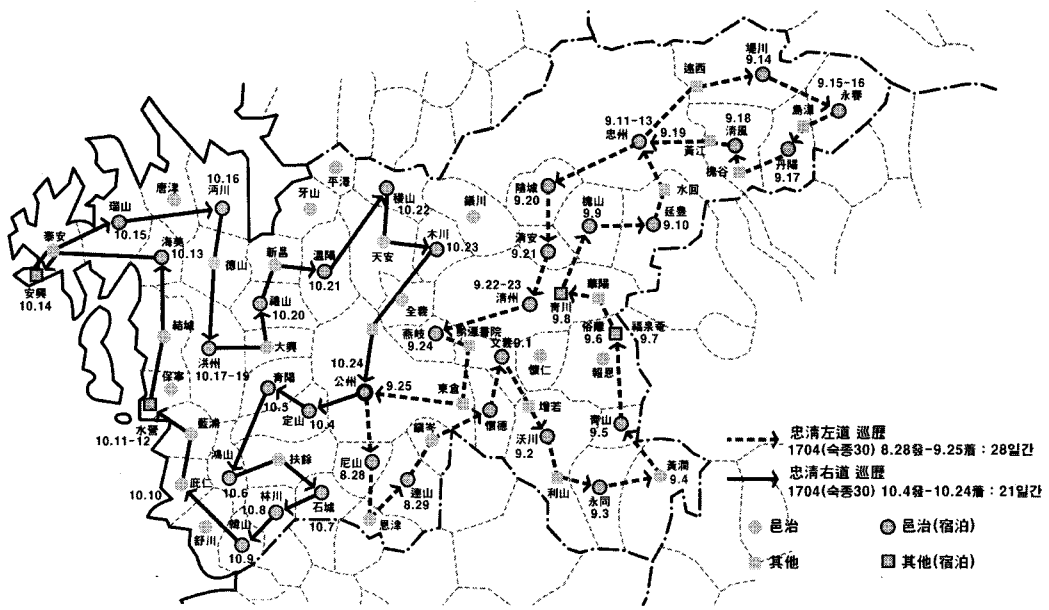


그림 3. 「忠淸監營日記」 忠淸監司 李濟의 巡歷 行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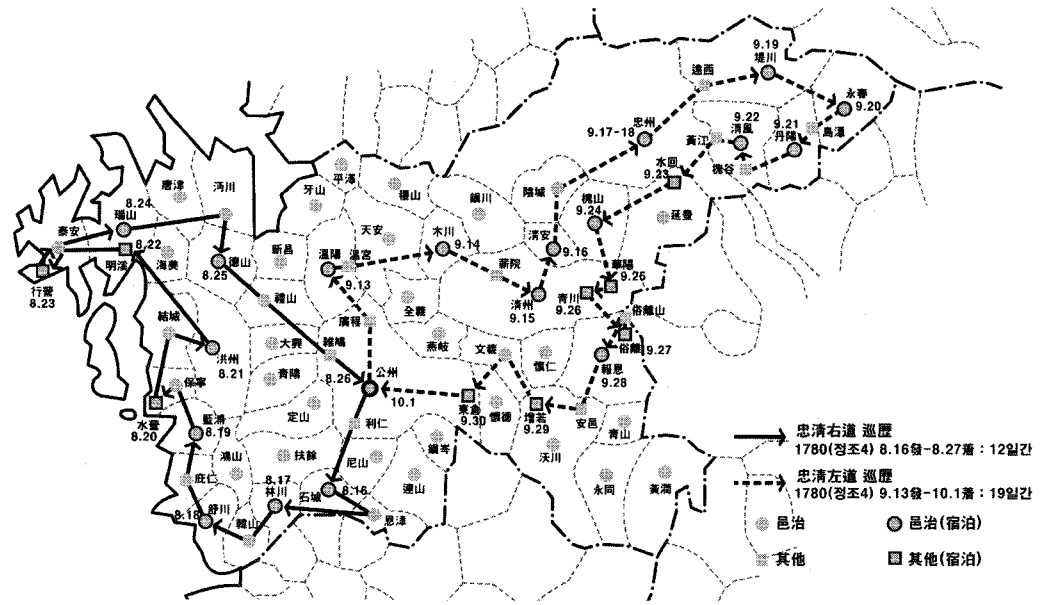


그림 4. 「錦營日記」 忠淸監司 沈頤之의 巡歷 行路

한 뒤 公州에 돌아왔다가 定山으로부터 右巡을 시작하였는데, 沈頤之는 石城으로부터 충청우도를 먼저 순력한 뒤에 公州에 돌아와 위로 溫陽으로부터 左巡을 시작하였다. 순력 노정 중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곳에 들르거나 연관이 있는 산소에 掃墳을 하는 등 개인적인 일도 함께 행하였으므로 순력 노정은 당해 觀察使의 의지에 따라 그때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적인 점도 발견된다. 監營處 公州를 기점으로 巨邑 牧인 忠州, 淸州, 洪州는 반드시 巡歷하는 곳이며 하루 이상을 머물며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28]

28) 『忠淸監營日記』 1704. 9.11-13., 9.22-23., 10.17-19., 「錦營日

水營이 있는 保寧과 行營이 있는 泰安도 반드시 거치는 邑으로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治所보다는 鎭營을 순력하였다.[29] 순력 노정 중 遊覽 성격의 지역도 공통적으로 들렀는데, 永春에서 島潭을 거쳐 丹陽에 들르고 俗離山에도 오른 것을 들 수 있다.[30] 순력 중에는 서원과 향교도 방문하는데, 李濟에 비하여 沈頤之는 아주 적은 수의 서원만 방문하였다. 그 중 華陽洞書院은 양 관찰사가 모두 審院한 주요 서원으로 지적할 수 있다. 沈頤之는 서원 奉審 다음날 尤巖산소에 오르기까지 하였다.[31]

충청도 관찰사의 순력 행로 중 특수한 점은 무엇보다 일부 水路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遊覽 성격의 경로인 '永春, 島潭, 丹陽'은 물론 '槐谷, 黃江'에 이르는 동안에도 水路가 이용되고 공주 땅에 들어서 監營에 돌아올 때에도 東倉, 寒風亭으로부터 배를 이용하였다.[32]

4.2 忠淸監司 巡歷時 行禮 및 邑治 施設 利用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觀察使가 道內 각 邑을 巡歷할 때는 敎諭書를 대동하였으며, 각 邑의 수령은 오리정에서 觀察使와 敎諭書를 맞이하고 前導하여 客舍에 이르게 된다. 客舍에서는 正廳에 전패를 設하고 그 앞뜰에서 迎命禮(延命禮)를 행하게 된다. 迎命禮 후에는 問上禮를 행한 뒤 차례로 公禮와 私禮를 행한다.

[표 3, 4]는 순력 기간의 기록 중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력하는 觀察使를 五里亭에서 맞이하였다고 특별히 기록된 경우만을 정리한 것이다. 日記에 따라 다소 상투적인 기록이 반복되지만,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까지 觀察使의 巡歷을 맞이하러 나왔다 기록된 곳은 淸州, 忠州, 洪州 등 營將이 설치된 邑[33]과 水營, 行營이다. 水使, 兵使, 營將, 虞侯[34]가 五里程에서 맞아 敎諭書에 肅拜한 뒤 前導하여 客舍에 들어 迎命禮를 행하고 坐起處로 옮겨 公私禮를 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行禮를 裨將이 대신한 것이 아니라 모두 관찰사가 직접 행하였음도 주목할 만하다.

표 3. 「忠淸監營日記」의 巡歷 중 觀察使의 五里亭 迎接 [1704년(숙종30)]

일자	장소	내 용
9.22	淸州	中營將과 虞侯가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서 맞아, 敎諭書에 肅拜한 뒤 公私禮를 행하고 東軒에 돌아가 坐起 行公하니 營將 虞侯가 入謁하였고 淸州牧使가 入謁.
10.11	水營(保寧)	水使와 虞侯가 領大旗幟를 거니리고 五里程에서 맞아, 敎諭書에 肅拜하고 公私禮를 행한 뒤 永保亭에서 坐起하니 水使 虞侯가 坐起禮를 행한 뒤 入謁.
10.17	洪州	前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서 맞음. 牧使와 營將이 入謁.
10.21	溫陽	左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서 맞아 入謁.

표 4. 「錦營日記」의 巡歷 중 觀察使의 五里亭 迎接 [1780년(정조4)]

일자	장소	내 용
8.20	水營(保寧)	虞侯가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서 맞이한 후 先導하여 運籌軒에 들어 迎命 후 入謁.
8.21	洪州(鎭)	本鎭(洪州) 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서 맞이한 후 先導하여 客舍에 들어 迎命 후 入謁.
8.23	行營(安興)	行營 中軍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서 맞이한 후 水使 역시 나와 敎諭書를 기다려 望揖하고 先導하여 誓海館에 이르러 水使 迎命을 친히 받고 인하여 公私禮를 행함.
9.15	西原(淸州)	中營將 兵虞侯가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 맞이한 뒤 兵使 역시 나와 敎諭書를 기다려 望揖하고 先導하여 客舍에 드니 營將 虞侯가 迎命. 客舍東軒에서 坐起하고 營將 虞侯가 公私禮를 행한 뒤 兵使 營將 虞侯가 入謁.
9.17	忠州	後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서 맞이한 후 敎諭書에 望揖하고 先導 前陪하여 바로 客舍에 들어 營將의 迎命을 받고 本官 東軒에 坐起하니 營將이 公私禮를 행한 후 入謁. 本官 入謁.

각 읍치의 객사에 행한 행례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1785년(정조9) 황해도 신계의 수령 鄭東元이 작성한 「重修客館記」의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그 구체적 모습을 일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해 가을 觀察使가 왔을 때, 旌과 節과 旂와 纛이 열지어 마당과 廊廡에 세워지고, 軍校와 吏士가 각각 그 位次를 얻어 威儀가 성하니, 이는 모두 館이 있기 때문이다.'[35]

記』 1780. 9.17-18.

29) 『忠淸監營日記』 1704. 10.11-12.

30) 『忠淸監營日記』 1704. 9.7., 9.16-17., 『錦營日記』 1780. 9.21., 9.28.

31) 『錦營日記』 1780. 9.27.

32) 『忠淸監營日記』 1704. 9.18-19., 9.25., 『錦營日記』 1780. 9.22-23., 10.1.

33) 세조조에 公州鎭이 설치되었는데, 인조조에는 公州에 右鎭營, 忠州에 後鎭營이 설치되었고 그 후에 洪州에 前鎭營, 청주에 中營將, 해미현감 겸임 左鎭營이 설치되었다.

34) 각 道에 배치된 兵馬節度使의 보좌관.

여기서 旄, 節, 旂, 纛은 모두 관찰사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깃발의 일종이다. 「經國大典」 禮典 의장에 관찰사는 節鉞을 가진다고 하였다. 節鉞은 節斧鉞의 약칭인데, 節은 手旗이다.[36] 纛은 사람 머리를 메달아 놓은 듯한 깃발이다. 기문에 언급된 旄·節·旂·纛 모두 깃발의 일종으로 국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관찰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16, pp.67-82] 觀察使의 巡歷에는 오리정에서 해당 읍치의 객사에 이르러 행례할 때까지 관찰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각종 깃발이 대동된 화려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營將이 설치된 읍에서 더욱 장려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증가하는 조선시대 邑治施設의 복원 및 활용 요구에 비하여 관련 연구가 매우 적다는 문제점의 인식 하에 18세기 忠淸道 觀察使가 작성한 監營日記를 대상으로 到界와 交龜, 監營處에서의 執務와 읍치시설 이용, 巡歷의 行路와 特性 그리고 巡歷時 각 邑治에서 행해진 行禮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관찰사의 到界地로는 稷山이 주요하지만, 제수당시 下三道의 지방관으로 재직하는 경우 사조를 생략하고 감영처 공주로 통하는 길목의 읍치로 到界하게 된다. 교귀처는 직산의 교귀소가 이용되었으나 공주에서 교귀할 경우 공주의 금강 상류와 拱北樓가 교귀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도계지와 監營處인 公州에서 관찰사를 맞는 行禮의 내용은 같으나 공주는 營將이 설치된 읍으로 右營將이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나오므로 他邑治에 비하여 그 行禮 규모에 차이가 있다. 또한 客舍에서 敎諭書 肅拜와 公私禮를 행한 뒤에는 將官 이하의 軍禮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도계 및 교귀와 관련하여서는 稷山의 五里程과 客舍가 行禮時 이용되는 주요한 시설이었다. 다만, 五里程은 亭子가 아닌 임시로 가설된 依幕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觀察使의 유영체제 확립으로 인한 수령의 감영처 방문 증가로 객사에서의 영명례가 증가하게 되지만 대부분 裨將이 대신 하는 형식적 행례로 진행되었다. 한편, 감영처 공주에는 御使등 使臣이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拱北樓, 挹河樓와 將臺, 雙樹亭 등이 周覽處로 이용되었고, 숙소로는 客舍 이외에 산성의 後樂亭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觀察使의 일상적 집무는 宣化堂 이외에 披香堂이나 拱北樓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주의 산성내 拱北樓는 교귀의 장소이며 주람의 장소이자 일상적 집무의 장소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충청감사의 순력은 監營處 公州를 기점으로 巨邑 牧인 忠州, 淸州, 洪州는 반드시 巡歷하였고, 水營이 있는 保寧과 行營이 있는 泰安도 반드시 거치는 邑이었다. 순력 노정 중 遊覽 성격의 지역도 공통적으로 들렀는데, 永春에서 島潭을 거쳐 丹陽에 들르는 것과 俗離山에도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華陽洞書院은 審院하는 주요 서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충청감사 순력 행로 중 특수한 점은 일부 水路가 이용된다는 점으로 遊覽 성격의 경로인 '永春, 島潭, 丹陽'은 물론 '槐谷, 黃江'에 이르는 동안에도 水路가 이용되고 공주 땅에 들어서 監營에 돌아올 때에도 배를 이용하였다.

순력하는 읍치 중 특히 행렬과 행례가 장려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읍치는 水營과 公州, 淸州, 忠州, 洪州 등 營將이 설치된 邑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水使, 營將, 虞侯가 領大旗幟를 거느리고 五里程에서 맞아 客舍에서 行禮하게 된다.

본고에서 밝힌 충청도 관찰사의 집무와 읍치시설 이용의 특징적인 점은 향후 他道의 觀察使 巡歷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5) 是年秋 按使至 旄節旂纛 列植庭廡 軍校吏士 各就位次儀仗之盛 皆斯館之所助

36) 節과 斧鉞 모두 국왕이 관찰사가 부임할 때 주는 授權의 상징이다.

참고문헌

[1] 李濟, "忠淸監營日記"

[2] 尹陽來, "湖西監營日記"

[3] 沈頤之, "錦營日記"

[4] 黃胤錫, "頤齋亂藁" 6책, 정신문화연구원, 2000.

[5] 李惟侃, "愚谷日記", 한국사료총서 45 "愚谷日記·野言日記", 국사편찬위원회, 2001.

[6] 趙載浩, 嶺南文化硏究院 역, "譯註 嶺營日記、嶺營狀啓謄錄", 2004.

[7] 柳希春, 담양향토문화연구회 역, "眉巖日記", 3권, 1994.

[8] "經國大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경국대전"

[9] 법제처 역, "國朝五禮儀", 1981.

[10] "忠淸道邑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62-188)

[11]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985.

[12] 丁若鏞, 다산연구회 역, "역주 목민심서"1-5, 창작과비평,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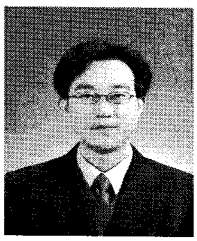
[13] 원주시, "江原監營誌", 2006.

[14] 대구광역시 중구, "慶尙監營四百年史", 1998.

[15] 영남문화연구원, "慶尙監營의 綜合的 硏究", 2004.

[16] 상주시·상주대 부설 상주문화연구소, "경상감영(상주관아)·감사도임순력행차 학술조사 연구", 2003.
[17]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2007.
[18] 이희권,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硏究", 집문당, 1999.
[19] 이수건,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20] 이존희,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硏究", 一志社, 1992.
[21]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22] 윤여헌, "朝鮮朝 公州(忠淸)監營考", 百濟文化, 제20집, 1990.
[23] 최영철,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박론, 1995.
[24] 여상진, "朝鮮時代 客舍의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대학교 박론, 2005.
[25] 여상진, "18世紀 忠淸道 觀察使의 巡歷",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2.
[26] "도심 내 읍치의 복원",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회 자료, 2007. 10.

여 상 진(Sang-Jin Yeo)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석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관심분야>
한국건축사, 공동주택